강의 계획서

2019학년도 제2학기

년도/ 학기	2019학년도 2학기
교과목명	역사 속 국제관계와 분쟁
교수명	박재우, 하원수,조성산,최자명,임경석,유정애,김민철,이상동
수업유형	특강
언어	한국어
강의개요	역사 속 국제관계와 분쟁은 성균관대 사학과 전임교수진이 합동으로 개발한 총 8강의 강좌이다. 이 강좌는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정세, 특히 한일 갈등과 같은 국제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역사적 통찰력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강좌는 대학원 수준의 역사 콘텐츠를 더 대중적인 방식으로 교육함으로써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교재 및 참고도서	동영상 강의자료로 대체

강의 주제 및 내용

주차	제 목	설 명
1	고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 논란 (하원수교수)	이 강좌는 동북공정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실제 고대 동북아지역 상황을 광개토왕릉비로써 검토하였다. 그리고 당시 인적 교육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평화로운 한중일 관계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세계화시대의 바람직한 국제관계를 모색해 보았다.
2	고려시대 다원적 국제질서의 해동천자 (박재우교수)	고려는 요하 이동의 해동 지역을 자기 천하로 생각하였고 국제사회에서 해동의 지배자로 인식되었다. 당시는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힘의 논리에 따른 외교가 이루어져 고려도 해동천자로서 능동적으로 외교활동을 하였다.
3	교체와 조청 관계사의 전개 (조성산교수)	이 강의는 명청교체와 그것에대한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인식이 어떠한 양상을 가지고 전개되었는가를 논한다. 이를 통하여 이 강의는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조선이 곧 중화라는 인식과 대청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본다.
4	일본의 패전과 야스쿠니 문제(최자명교수)	이 강연은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를 창립부터 현재까지 개관함으로써 왜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과 동아시아에서 분쟁의 소지가 되었는가를 이해하고 이 신사를 프리즘으로 일본의 패전과 재생과정을 비교사적 시점에서 고찰한다.
5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독립시킬 수 있는가 (임경석교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재편과 3.1운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했다. 식민지 피억압 민족의 해방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은 언제 주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모색하게 했다. 독립운동이 아무때나 가능한것은 아니다. 그 성공 가능성은 제국주의 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다른 강대국과의 국제적 연대가 이뤄졌을 때에야 비로소 주어진다는 점을

		다각적으로 설명했다
6	칼국수와 수제비 : 세계 식량체제와 한국 (유정애 교수)	국제 정치경제적 필요에 의해 한국의 전통음식 수제비가 만들어지고 라면이 대량으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밀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비전통적 곡물로 이제 한국인의 생존자체가 국제경제에 의존하는 상태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보이는 변화와 보이지 않는 움직임에 대해 얼마나 의식하며 그들의 역학관계와 역사에 대해 사유를 할까? 또한 겉으로 드러난 실물이 얼마나 많은 진실과 사실을 덮고 있는 것일까?
7	프랑스 혁명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의 자매공화국 (김민철교수)	1789년부터 1815년까지 프랑스는 주변 지역을 병합(벨기에, 아비뇽, 니스,제네바, 이탈리아)하거나 그곳에 자매공화국들을 수립(네덜란드,스위스,독일, 이탈리아)하면서 세를 확장했다. 본 강의는 그 과정을 개략하고 그것이 침략인지 해방인지를 둘러싼 당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수강생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 보는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8	영국의 통합과 갈등 (이상동 교수)	본 강의는 영국이 형성되는 통합의 과정과 그 속에 응축되어 있던 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내외적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